

해남군, 검은 반도체 '김산업' 글로벌화로 발전동력 모색

지난해 사상 최대 1138억 판매고
기후변화에 생산량 ↓... 대응 시급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 산단 조성



해남군청사 로비 전시회 앞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농수산업의 미래 전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발전방안을 모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해남농수산업 미래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 진흥에 전 부서가 협업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삼면이 청정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해남김은 지난해 최초로 물김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1138억원의 판매고

를 올렸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황산면의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가공에도 착수했다.

올해 말 정부 김 육상 양식 공모사

업에도 도전할 계획으로, 기업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김 수출 확대를 위한 육상양식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김 산업 혁신방안도 본격 추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미래산업으로서 어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은 지난해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 품 1위로,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과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 등지의 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육·해상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첨단스마트화 연구개발은 물론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203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농어촌 수도, 해남' 전략에 맞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중심의 농업분야와 더불어 어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초 농수산물 수출 협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통해 김 수출의 가능성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양식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발전동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전국 최초 '112한달음선' 발대식

완도군에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112한달음선' 대원으로 위촉된 26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12한달음선'이란 경찰이 미배치된 인구가 적은 섬의 주민 치안을 위해 완도군이 지원하고 완도경찰서가 지정·요청하여 운항하는 민간 선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거창군 60세대에 '여름나기 키트' 지원

거창군은 거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60세대에 '시원한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시행하고 있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와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폭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자체 포장해 제작한 키트는 서큐레이터, 여름 이불, 해충 퇴치기 등 5종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커피도시 홍보대사에 '폴킴'

부산시는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위촉식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고 폴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폴킴은 2014년 데뷔곡 '커피 한 잔 할래요'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다수의 히트곡과 드라마·영화 OST 작업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폴킴의 반듯하고 똑똑한(스마트한) 이미지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황리단길 상가 화장실 무료 개방

경북 경주시는 황리단길 내 상가 300곳이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500여 곳 중 60%에 해당하며 이날부터 방문객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점포주동의를 얻어 화장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황리단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개성 넘치는 거리로 늘 관광객이 북적이며 지난해 1300만 명이 방문한 경주 대표 관광명소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이 포석로 공용주차장, 송해전 소공원, 대릉원,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등에 한정돼 불편을 겪어 왔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목포시, 올해 말까지 화장로 1기 추가증설

지역민 위한 화장서비스 개선

목포시가 장례문화 변화 등 화장 수요 급증에 따른 화장로 증설 국비에 산등을 확보, 2024년말까지 화장로 1기를 추가증설해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화장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 서남권은 화장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로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현재, 목포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화장장은 2015년 12월에 개장해 6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나 전남 타지역 시설에 비해 가동률이 월등히 높은 포화상태로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3일장에서 4일장으로의 장례비율이 꾸준

히 높아짐에 따라 신안 도서지역의 경우 화장장이용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화장로 증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화장로 증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3억3천5백만원)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6억6천만원 예산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1기 증설에 들어간다. 목포시 추모공원은 화장로 추가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별도 건축물 증축 없이 신속하게 화장로 1기 설치가 가능하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통합의 공감대를 위한 상생 발전과제로 도서주민들을 위한 화장로 1기를 증설해,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관내주민 우선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경남도, 베트남서 K-수산식품 수출 성과

9개사, 9.3만달러 수출계약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남도 K-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측 및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수산식품기업 9개사가 참가해 수출의향협약 281만 달러와 수출계약 9만3000달러(1억28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참가 업체들은 붕장어, 굴통조림, 게장류, 젓갈류, 부각류, 조미김류, 활수산물 등 27개 품목을 홍보했다.

경남도는 1일부터 7일까지 호찌민의 신도시인 투득군에 있는 티쏘몰(T hiso Mall Sala)에서 경남 우수 수산식품 홍보·관측 행사를 진행했는데, 베트남 시장 개척에 참여한 9개 사 중

7개 업체가 참여해 조미김, 굴 통조림류, 부각류, 젓갈, 게장, 해물떡볶이 등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요리가 간편한 17개 제품을 소개했다.

베트남의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고, 3350여 개의 '좋아요'와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경남의 K-수산식품 인기를 확인했다. 또 행사 기간 중 베트남 현지 바 이어 20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베트남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고, 11건 281만 달러의 수출의향협약을 체결했다.

하반기에는 중국 청도 수산박람회 참가와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난 8일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대구시,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도모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9대 공동대응 성명 채택 탄소중립·저출생 등 지원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난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8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며,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과제(1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GB 지역전략

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삼 살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이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라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조와 시·도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8개 사업 29조6,857억 원)를 건의하고, 2024대구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시,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려

2565곳에 서한문 발송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명의로 지역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가 늘

어내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는 취지이다.

서한문은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요청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